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컬렉션의 새로운 시계

몇 달 전 제네바 고급시계박람회(SIHH)에서 처음 공개한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컬렉션에서 추가로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지오그래픽 WT 시계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25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될 새로운 모델은 오직 예거 르쿨트르 부티크에서만 판매됩니다. 그랑 메종의 아이코닉 모델인 1968 메모박스 폴라리스에서 영감을 얻은 시계 디자인은 완전히 새로워진 곡선 라인으로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일상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코스모폴리탄 룩을 선사하는 한편, 오리지널 모델에 담긴 특유의 대담한 모험가적인 정신을 충실히 계승합니다. 42mm 케이스에 탑재된 기계식 셀프-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36A/1에는 새로운 그래픽 기술이 추가되어 여행자와 활동적인 남성들에게 이상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계 여행자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예거 르쿨트르의 아이코닉 기능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지오그래픽 WT(월드 타임) 시계는 다이얼 가장자리에 표시된 24개 타임존을 통해 전 세계 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존은 10시 방향의 크라운으로 간단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써머 타임 기간에 있는 도시들의 경우 하얀 별표 인덱스가 표준 시간과 한 시간 차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활동적인 남성들을 위한 우아하고도 기술적인 다이얼

다이얼 디자인에서는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를 상징하는 두 가지 컬러이자 이 컬렉션의 진정한 시그니처인 블루에서 블랙으로 서서히 변하는 그라데이션 톤의 색채가 단연 돋보입니다. 스모키 블루 다이얼은 폴라리스 지오그래픽 WT 시계에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시티 디스크의 오팔린 마감, 2시 방향 날짜 서브 다이얼과 6시 방향 세컨드 타임존, 10시 방향 파워 리저브의 선레이 마감, 케이스백의 그레인 마감과 같이 다이얼에는 세 가지 다른 마감 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낮/밤 표시 디스크는 블랙과 화이트의 두 개 섹션으로 선명하게 구분되어 현재 머물고 있는 도시(착용자가 선택한 세컨드 타임 존)의 시간대가 낮인지 밤인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디스크 위에서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작은 디테일은 낮 시간대를 표시하는 작은 태양과 화이트 배경의 블랙 숫자, 밤 시간대를 표시하는 작은 초승달과 블랙 배경의 화이트 숫자입니다.



아이코닉 타임피스의 기원

새로운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라인에 영감을 준 모델은 그랑 메종의 역사적인 아이콘인 1968 메모박스 폴라리스 시계로, 당시 크라운 세 개가 탑재된 대담한 디자인은 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제안한 폴라리스라는 이름은 1960년대의 대담하고 모험적인 정신을 반영했습니다. 폴라리스는 또한, 자유와 아방가르드 운동의 아이콘으로서 하나의 새로운 혁명을 예고했습니다. 알람 기능과 수중에서도 알람 음향을 최적화하는 기술로 특히 받은 삼중 케이스백을 탑재한 획기적인 다이버 시계를 선보인 것입니다. 시계에 담긴 이러한 정신을 함축하여 폴라리스는 당시 "메모박스, 역동적인 리더를 위한 시계"라는 슬로건으로 소개되었습니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1,714피스의 메모박스 폴라리스 II 시계가 제작되었습니다. 2018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혼은 더 짧아지고 베젤은 더욱 슬림해져 한층 더 현대적인 룩과 선명한 가독성을 선사합니다. 폴리싱과 브러싱 마감 기법으로 컬렉션의 스포티한 감성이 더욱 돋보이고 플렉시글래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바뀌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새로운 폴라리스 지오그래픽 WT 시계는 지난 1월 제네바 SIHH에서 성공적으로 출시한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컬렉션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새로운 모델은 250피스 한정 제작되며 예거 르쿨트르 부티크에서 단독 판매됩니다.

상세 정보:

사이즈: 42mm

두께: 11.54mm

칼리버: 936A/1 - 오토매틱

기능: 시/분/초, 24시간 월드 타임, 세컨드 타임 존, 파워 리저브

다이얼: 선레이, 그레인 마감

방수: 100m

리미티드 에디션: 250피스

예거 르쿨트르의 세계

예거 르쿨트르는 1833년 스위스 산맥의 발레 드 주 계곡에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창립 이후부터 모든 시계를 시계 명장들이 무브먼트에서 케이스까지 하나하나 디자인하고 만들어 조립합니다. 여기에는 독창성과 의지, 성실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갈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인 정신입니다.
